

“토사 유출 재발방지 근본 대책 수립해야”

우범기 전주시장, 토사 유출 견훤로 피해 현장 찾아 복구 진행 상황 점검… 배수처리 계획 수립 시행 추진

우범기 전주시장이 두 차례에 걸쳐 도로변 토사가 유출돼 주민 불편을 야기한 우아동 폭우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9일 토사 유출 복구작업이 한창인 우아동3가 견훤로를 찾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구작업을 서두르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곳은 며칠간 이어진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5일에 이어 18일에도 도로 옆 동산(사유지)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를 시작으로 토사를 제거하고, 마대를 쌓는 등 밤샘 복구작업에 노고가 많았다”면서 “다행히 한 명의 재산·인명 피해 없이 복구작업 및 피해 상황이 미무리되는 것 같아 한숨 돌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해 장마 기간만 두 번째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응급 복구는 안전하

고 신속하게 마무리했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구계획을 신속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추가 토사유출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한 배수처리 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견훤로 2차 토사 유출 현장을 확인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곧바로 교통통제를 단행했다.

이어 인력 20명과 크레인과 굴삭기, 덤프 등 장비 12대를 투입해 토사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토사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대형 모래마대 150개를 쌓아 올리는 밤샘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5일 토사 유출 상황에서는 도로변으로 쏟아지는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절개지 방수포 작업(300m²) △모래마대 300개 △도로 살수 작업 및 안전 시설물(PE 드럼통) 설치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19일 토사 유출 복구작업이 한창인 우아동3가 견훤로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주시, 전미동에 액화수소충전소 들어선다

민간사업자 SK플러그하이버스, 2024년까지 완공 예정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전주시 송천동에 이어 전미동에도 액화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됐다.

액화수소충전소는 기존 기체수소충전소와 비교해 설비용량이 큰 데다 빠른 충전도 가능해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등 수소상용차 보급 확산과 전주시 수소경제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에 의하면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액화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조사사업’ 공모에서 전주시 전미동 스타관광 버스차고지가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SK플러그하이버스는 오는 2024년까지 국비 70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투입해 전미동 스타관광 버스차고지에 하루에 버스

전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플러그하이버스 관계자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충전소를 세울 수 있도록 전주시와 협력해 수소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내년까지 수소버스 105대 도입, 수소충전소 7개소 구축 등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미동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 밸리 맞춰 수소차 보급과 지원에 앞장서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정비 추진

전주시가 등산로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돋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 정비한다.

시는 전주지역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시리지거나 훼손된 번호판과 잘못 표기된 번호판 등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판 사진

국가지점번호판은 국토를 가로와 세로 10m 간격으로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

한 위치 표시 번호로서, 산악과 하천 등 건물이 없는 비거주지역에서 각종 사고 발생 시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를 위해 올해 모악산과 고덕산, 황방산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등산로를 중심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총 361개를 조사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표기 오류가 확인된 번호판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를 안

내하는 현장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훼손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된 번호판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모두 정비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해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게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달랬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마닐라시의회 의원들이 우호 협력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 교류·우호 협력 다짐

전주시의회-필리핀 마닐라시의회, 간담회 가져

전주시의회가 필리핀 마닐라시의회와 우호·협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19일 마닐라시의회와 양국 문화 교류와 의회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서 마닐라시의회 유팽코 라이문도 레예스(Yupangco Raymundo Reyes) 단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과 14명의 관계자들은 전주시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과 도시 발전과 의회 운영 등 각종 의견을 공유하며 우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환영사에서 “마닐라시의회와 다양한 의견 공유를 통해 향후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즐겁게 힘껏 한다”

/김옥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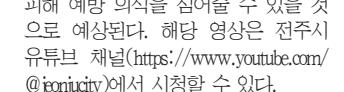
전주시 덕진구, 전세사기 예방 유튜브 영상 홍보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길)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예방 유튜브 영상 홍보를 실시한다.

덕진구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영상콘텐츠를 만들어, 전주시 홍보실에 의뢰하여 시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상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 팁 다섯 가지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안내 △임대차 계약서 특약 요청 방법 △전입신고 일자시키기(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주소) 등이다.

이번 유튜브 영상 게시를 통해 전주시민들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영상은 전주시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jeonjicity>)에서 시청할 수 있다.

최병길 덕진구청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고자 영상을 게시하게 됐다”며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임차인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